

제20대 대종회 임원 선임 및 자문위원 위촉

<이사(29명)>

권경탁(36세, 복야)
권광훈(34세, 복야)
권대순(37세, 추밀)
권동현(35세, 복야)
권두현(32세, 부정)
권민호(35세, 복야)
권병후(35세, 추밀)
권석원(35세, 추밀)
권선출(36세, 추밀)
권성진(36세, 좌윤)

권성환(35세, 추밀)
권송웅(34세, 추밀)
권순길(37세, 추밀)
권순식(37세, 좌윤)
권순용(38세, 추밀)
권순창(37세, 별장)
권영갑(34세, 추밀)
권영기(32세, 검교)
권영순(34세, 복야)
권이원(35세, 추밀)

권재호(34세, 복야)
권주현(37세, 추밀)
권정택(33세, 검교)
권중섭(32세, 부정)
권태훈(33세, 검교)
권택문(37세, 좌윤)
권혁동(36세, 추밀)
권혁우(36세, 추밀)
권환진(38세, 추밀)

<종무위원(66명)>

추밀공파(10)
권오돈(35세, 추밀)
권경일(36세, 추밀)
권병선(35세, 추밀)
권병문(35세, 추밀)
권기준(35세, 추밀)
권순호(37세, 추밀)
권오협(35세, 추밀)
권동원(35세, 추밀)
권인순(37세, 추밀)
권영익(34세, 추밀)

복야공파(10)
권영상(34세, 복야)
권기운(36세, 복야)
권택도(37세, 복야)
권영범(34세, 66년생)
권기석(36세, 복야)
권경수(35세, 복야)
권기태(36세, 복야)
권녕욱(34세, 복야)
권영범(34세, 49년생)
권오택(35세, 복야)

부정공파(8)
권경호(36세, 부정)
권명달(35세, 부정)
권성덕(33세, 부정)
권오서(35세, 부정)

권오춘(35세, 부정)
권태균(35세, 부정)
권홍식(37세, 부정)
권효준(33세, 부정)
좌윤공파(5)
권오신(35세, 좌윤)
권용호(38세, 좌윤)
권혁두(36세, 좌윤)
권원수(37세, 좌윤)
권진택(37세, 좌윤)

검교공파(5)
권태정(33세, 검교)
권태혁(33세, 검교)
권용태(33세, 검교)
권오철(35세, 검교)
권영호(34세, 검교)
중파(3)
권우영(37세, 중파)
권순욱(37세, 중파)
권우석(37세, 중파)

부호장공파(3)
권오관(35세, 부호장)
권태봉(33세, 부호장)
권현중(34세, 부호장)
동정공파(3)
권영준(34세, 동정)
권혁철(36세, 동정)

권혁직(36세, 동정)
별장공파(3)
권기수(36세, 별장)
권동현(38세, 별장)
권재욱(37세, 별장)
시중공파(1)
권중근(32세, 시중)
금사중공파(3)
권옥형(37세, 금사중)
권순범(35세, 금사중)
권장승(38세, 금사중)

중윤공파(3)
권상형(36세, 중윤)
권영탁(34세, 중윤)
권윤대(35세, 중윤)
군기감공파(3)
권순채(37세, 군기감)
권영락(36세, 군기감)
권순복(37세, 군기감)
정조공파(3)
권오길(정조공파 회장)
권순수(37세, 정조)
권순학(37세, 정조)
호장공파(3)
권은진(33세, 호장)
권중희(32세, 호장)
권태형(33세, 호장)

<자문위원(7명)>

권오을(현 국가보훈부 장관)
권명호(전 국회의원)
권은희(전 국회의원)

권선택(전 국회의원)
권철승(현 국회의원)

2026.8.1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혁홍

권순기 제19대 경상남도 교육감 취임식 거행

권순기 제19대 경상남도 교육감 취임식이 7월 1일 국립장원대 학교 이튿홀에서 각계 내외빈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권순기 교육감은 찾아오는 경남교육을 표방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선거기간 마창진 종친의 협조에 감사함을 전하였다.

권순기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교원 보호 조례 제정이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학생도, 교직원도, 학부모도 존중받는 시스템이 이상적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봐도 좋겠다”며 “전북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 장단점을 잘 분석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를 구성하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권영삼 마창진 종친회 부회장



안동능곡회 40주년 기념 및 40·41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권우성 신임회장

능곡회(陵谷會: 회장 권기섭)가 주최하는 “능곡회 40주년 기념 및 제40, 41대 회장 이·취임식”이 7월 10일 오후 6시 30분 안동 두리원웨딩홀 5층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는 권혁홍 대종회 회장,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영삼 복야공파종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보내는 대형화환이 60여 개이며 행사장 안에는 장미꽃 등 여러 종류의 꽃들로 가득 차서 꽃냄새가 물씬 풍

기는 가운데 행사가 치러졌다.

본 행사에 앞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뜻에서 ‘쓰리고 장구’ 남녀 5인조 팀이 신나는 노래에 맞추어 장구를 치면서 분위기를 상승시켰다.

이날 행사는 1, 2, 3부로 나뉘 1부 진행은 권동관 사무국장 사회로 권기섭 능곡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시조소 망배, 권오규 상임부회장의 내빈 소개가 있었다. 내빈으로는 권기창 안동시장,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오익 대종회안동사무국장, 권오갑 능우회장, 권기윤, 여주희 안동시의원, 권태형 안동농협조합장 등이며 권기창 시장은 바쁜 일정으로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

식순에 따라 능곡회원과 능우회원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상읍례를 한 후 권기섭 능곡회장이 권오갑 능우회장에게 금일봉과 꽃다발을 전했다. 이어 권기섭 회장은 능곡회 발전에 도움을 준 권동관 사무국장, 권순욱 재무국장, 권오석 1분과장, 권일경 4분과장 등 4명에게 감사패와 공로

패 그리고 꽃다발을 수여했다.

권기섭 능곡회장은 이임사에서 “임기동안 월례회, 분과별 모임, 복회를 개최하여 회원 및 회원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웃놀이 대회도 개최, 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큰 몫을 하였으며 회원들 도움과 협조로 회장 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2부 행사는 권계돈 신임사무국장의 진행으로 회원들의 축하 속에서 권우성 취임회장부부가 입장하자 많은 박수로 환영했다. 권기섭 능곡회장은 권우성 신임회장에게 꽃다발을 전한 후 능곡회의 상징인 능곡회 기(旗)를 전달, 권우성 회장은 회기(會旗)를 전달받아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권우성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노력하며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지역 사회에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능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안동에서 제36회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능곡회는 일

심동체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함께 하나 되는 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권우성 신임회장(정조공파)은 안동영문고교와 국립상주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 현재 쿠팡과 생수 등을 취급하는 주연물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권우성 신임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능곡회를 위하여 헌신한 권기섭 회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 그리고 권영목 능우회원(사진작가)이 협찬한 사진 물 1점을 함께 기증했다.

축사 순서에서 권혁홍 대종회 회장, 권기창 안동시장, 권오갑 능우회장 등 3명 중 2명은 현장에 부재중이었으며 1명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축사와 격려사는 유인물로 대체(代替)했다.

곧 이어 권철환 종친회장은 격려사에서 “날씨도 덥고 70살이 되어 한복입고 다닌 사람은 나 밖에 없다”면서 양반으로서 예의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토로했다. 권 회장은 “지난번 선거 때는 끊었던 담배도 피우고 이빨도 빠졌으나 안동권이 당선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아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권 회장은 “안동권씨 100만 축전의 중심이고 권문의 지도자

신중년, 멈춤의 의미

- 서두르지 않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 -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세 복야공파)



는지 정하고 자리에 앉으면 하루 한 가지가 다음 일을 불러옵니다. 큰 변화는 대단한 하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완성을 멈추지 않는 날들이 모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많이 하기보다 제대로 남기는 삶

신중년에는 모든 가능성을 붙들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나에게 맞고 어떤 일이 성과로 이어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잘되는 것을 골라 더 깊게 운영해야 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터득한 사람이 오래갑니다.

지과필개(知過必改),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친다는 뜻입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잘되지 않는 일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잘되는 일에 힘을 모으는 결단입니다. 신중년의 경쟁력은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아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인생 후반의 성과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무엇을 제대로 남겼느냐로 기억됩니다.

맺음말 - 다시 나아가기 위한 멈춤

멈춤은 인생의 빈칸이 아닙니다. 지나온 길을 정리하고 앞으로 걸어갈 방향을 다시 정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멈춘다고 삶이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멈춤 줄 아는 사람이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40대라면 바쁜 걸음을 잠시 늦추고 지금 가는 방향을 살펴보세요. 5060이라든 쌓아 온 경험 가운데 무엇을 남길지 선택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 하루 한 가지씩 이어 가면 됩니다.

신중년의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인생 2막을 제대로 여는 출발점입니다.

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 정답게, 아름답게, 동반성장합시다!

민선9기 제32대 권기창 안동시장 취임식 개최

민선9기 제32대 권기창 안동시장 취임식이 7월 1일 오전 10시 안동시민회관 영남홀에서 도의원 및 시의원, 노인회, 장애인, 여성단체, 청년단체, 시내 기관단체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오직 안동 오로지 시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취임식에는 김주연 등 남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식전공연,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취임선서, 취임사, 꽃다발 증정, 축하전문 낭독, 영상시청, 포포먼스, 축하공연, 안동시민의 노래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식전공연은 이시연의 바이올린 연주로 ‘안동역에서’ 등 세 곡을 연주했으며 ‘안동역에서’ 연주할 때 연주자의 권유에 따라 권기창 시장부부가 앉은 자리에서 바이올린에 맞춰 함께 ‘안동역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어 안동MBC 최기정 등 개그맨 두 명이 무대에 나와 ‘안동특 별시 면접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개그를 하여 많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개그 공연이 끝나자 권기창 시장은 취임선서에 이어 취임사에서 “나는 지구를 다섯 바퀴를 돌 정도의 20만km의 거리를 안동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회고하고 “그 동안 가정용 수도물 반값받기 등 4년 연속으로 공약이행을 달성하여 정부로부터 최우수 등급을 받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공약사업으로 (1)천만 관광객도시 (2)일상 복지도시 (3)청년 포용도시 (4)친환경 기업도시 (5)경제도시 (6)교통 거점도시 (7)안심 정주도시 (8)정원도시 (9)생활체육 도시 (10)농업 특



화 도시 등 10대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안동의 100년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으며 시민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며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금경수 재경향우회 회장 등 남녀 2명이 권기창 시장부부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이 자리에서 배용수 안동부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축하전문을 낭독하였으며 사회자가 김형동 국회의원의 축하전문을 낭독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하영상메시지를 시청했다. 이와 함께 자매도시인 부산시 행운대구 김성수 구청장과 일본 사가에(寒河江) 시(市) 사이토우 마사이카(齋藤真朗) 시장이 보낸 영상을 각각 시청하기도 했다.

이어 시민 5명이 권 시장한테 바라는 영상도 시청하였다. 안동시립합창단의 ‘축배의 노래’에 이어 ‘안동시민의 노래’를 참석자 전원과 함께 합창한 후 폐회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를 배출하고 분향인 안동에서 미래를 받쳐주는 단체가 바로 능곡회이며 권문의 자존심”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능곡회를 칭찬하고 있다. 그는 지은 지 30년이 넘는 안동 권씨회관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권우성 회장은 신임회원 권정욱(시중공파, 한성중기 대표), 권순우(복야공파,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대리), 권순화(복야공파, 자영업) 등 3명을 능곡회에 임회

시키고 회원증과 꽃다발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제41대 신임 회장단 13명이 단상에 올라와서 인사 겸 입원 소개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나서 폐회 선언을 하였다.

3부는 능곡회 전원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한 후 4층에 마련된 만찬장에서 뷔페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태워 한 장식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